

금상

“왜 하필 내 고향이 인천인 거야?”



차 효민 • 인천 청학초등학교 4학년

나는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라 왔다. 한때 나는 내 고향이 인천이라는 것이 싫었던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인천이라는 도시는 자랑할 만한 특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왜 하필 내 고향이 인천인 거야? 볼거리, 즐길 거리 많은 서울도 있고, 멋진 해운대가 있는 부산도 있고, 예쁜 호수가 있는 충주도 있는데……. 인천은 정말 날 설레게 하는 게 없어.”

나는 얼마 전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내 불만을 이야기했다. 모두들 놀란 눈치였다. 그중 우리 할머니는 유독 안타까운 눈빛으로 날 쳐다보셨다. 그리고는 내게 할머니와의 하루 소풍을 제안하셨다.

며칠 뒤 나는 그동안 내가 인천에 대해 가졌던 마음이 너무 미안해질 만큼 멋진 하루를

만났다. 6월 11일, 아직 여름도 아닌데 더워서 나는 선크림도 바르고 손수건과 손선풍기도 챙겨 할머니와의 하루 소풍을 출발하였다.

우리 소풍의 목적지는 팔미도라는 섬이었다. 할머니와 나는 연안부두에서 팔미도로 들어가는 관광 유람선을 탔다. 우리가 탄 배는 연안부두, 인천갑문, 인천대교를 통과하여 인천공항을 지나 팔미도로 들어간다고 했다. 가이드 아저씨는 바다와 한강의 수위 차이 때문에 설치한 인천갑문과 국내 최장, 세계 6위인 바다 위에 세운 인천대교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셨다. 그리고 안타깝게 요즘 세계 최고의 공항 1위 자리를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3위에 당당하게 랭크되어 있다는 인천공항까지, 인천에 대한 자랑을 목이 터져라 하셨다.

이어서 팔미도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었다. 팔미도는 1903년 6월에 설치된 대한민국 최초의 등대가 있는 곳으로, 106년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된 신비의 섬이다.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온 위기상황에서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261척의 함정이 인천항으로 무사히 들어올 수 있도록 환하게 길을 안내해 준 등대가 있는 역사적인 곳이라고 하셨다. 아저씨의 멋진 설명 덕분에 팔미도로 가는 길은 지루할 틈이 없었다.

드디어 팔미도에 도착했다. 배에서 내리는 순간 106년 동안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내게 해 주려는 듯 솔잎 향 가득한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쳐 갔고 햇살이 쏟아지는 바위틈에는 팔미도의 친구들이 나를 반겨 주었다. 나는 조그마한 새끼 계와 인사도 나누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인천상륙작전의 일등공신 등대를 마주하였다.

“네가 말로만 듣던 멋진 등대구나. 고생했다, 그리고 고맙구나.”

할머니는 등대를 토닥이시며 말씀하셨다. 등대와 기념비, 홍보관을 차례로 둘러본 할머니와 나는 팔미도 전망대에서 푸른 바다를 보며 앉았다.

“효민아,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6·25전쟁 때 황해도 해주에서 인천으로 피난을 오셨고, 할머니는 전쟁으로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고향 대전을 떠나 가족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어. 그래서 할머니는 먼 친척이 있는 인천에 와서 살게 되었단다.”

할머니는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인천이 고향이 아닌 두 분은 인천에서 만나 결혼하셨고, 엄마를 낳고 그리고 내가 태어난 것이라고 하셨다.

“전쟁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모, 형제들과 생이별을 하고, 아는 이 하나 없는 인천에서 먹고 살려고 고생 엄청 했지. 그때 할머니 나이가 효민이보다 조금 어렸지.”

할머니의 눈가는 촉촉해지셨다. 우리의 이야기를 등대도 가만히 듣고 있는 것 같았다. 64년 전 그날 밤 이곳의 등대가 켜지지 않았더라면 꼬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 그럼 엄마와 나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팔미도 등대가 너무나도 늠름해 보였다. 팔미도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한 시간이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께서 물으셨다.

“할머니가 하필이면 인천에 와서 효민이 고향이 인천이 됐네! 어찌지? 근데 할머니는 인천에 왔기 때문에 우리 예쁜 손녀딸까지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 인천이 너무 좋은데, 효민이는?”

그 순간 인천이 싫다고 말한 것이 너무 미안해서 답을 하지 못했다.

“할머니! 저에게 이런 멋진 소풍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나라 국민을 전쟁

에서 구해 준 팔미도 등대가 인천에 있는 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도 없는 인천에 오셔서 고생하시며 살면서도 팔미도 등대처럼 엄마도, 나도 길을 잃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 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려요. 할머니, 저도 앞으로 팔미도 등대처럼, 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길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비춰 주는 사람이 될래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는 이제 내 고향 인천을 사랑하고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